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보기

월드뷰

WORLDVIEW



2012

1

Cover Story

성경적 미디어로 세상을 밝힌다

졸리온 미첼 교수

Special Column

미디어, 성경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차가운 미디어 속에서 사람을 만나다

사이버 중독에 빠지지 않고 즐기는 방법

서평 : 세계관은 이야기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연회의 시작 - 엘타워

호텔 가격의 거품은 걸러내고 품격만을 남겼습니다

세계 일류 기업들의 선택으로 더욱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엘타워에서 국내 최고의 연회를 경험하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닛산,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공 비즈니스의 무대로 **엘타워**를 선택했습니다.



닛산 / 그랜드룸



마이크로소프트 / 그랜드룸



2010 SFAA 서울 컬렉션 / 그랜드룸



인텔 / 마리골드룸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포츠파티,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품 있는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예약·문의 02-526-8600 ~ 4 | 양재역 7번출구 바로 앞 위치

한국 교회의 부패와 기독교적 세계관

손봉호

최근 한국 기독교계의 부패가 심각하다.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금전적, 성적 스캔들을 일으키고 한국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한기총이 돈 선거로 회장을 뽑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신자들보다 더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의심이 생긴다.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다. 부패한 행위를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실뿐이다. 비록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면 그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는 항상 주위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도 타락하면 한국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답습하지, 결코 미국이나 아프리카 사회의 모습을 닮지는 않는다. 문제를 야기한 한기총 관계자나 스캔들을 일으킨 목회자들은 한국적 세계관의 부정적인 요소들에 영합하여 행동했다.

한국적 세계관은 무속종교와 유교에 의하여 주로 형성되었다 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철두철미 차세 중심적이란 것이다. 무속신앙과 유교는 실재적으로 무신론이

고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삶의 의미, 목적, 행복은 이 세상에서 이룩해야 하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임신양명(立身揚名), 즉 출세해야 이름을 날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상이나 내세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더 중요함으로 부정과 불법을 감행하면서 돈,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기총 회장이란 명예를 위해서 불법으로 돈을 쓰고, 돈이 공정성과 정직성보다 더 중요하므로 일부 대의원들은 돈을 받고 표를 판 것은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부정과 일치한다.

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부정 사건들은 국제투명성기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준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그 어느 나라들보다 한국에 기독교인의 인구비율이 높다. 그런데도 사회가 이렇게 부패한 것은 한국 기독교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한국적 세계관의 부정적인 요소를 개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감염되어 행동하기 때문이다. 믿는다 하면서 무신론적이고 차세중심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이상이며,
기독교적 세계관 운동은 이미 주어진 세계관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염되어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비판하고 개혁하는 몸부림이다.**

철저히 차세중심적인 한국 문화의 세계관이 산출하는 부작용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저히 낮은 도덕적 수준이다. 한국의 경제, 교육, 과학 기술은 선진국 수준인데, 유독 도덕은 후진국 수준이다. 세계 투명성기구는 한국의 투명성이 세계에서 43번째라고 표했다. 싱가포르 5위, 홍콩 12위, 일본 14위보다 현저히 뒤떨어지며 대만과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32위보다 더 부패한 것으로 발표했다. 철저히 차세 중심적 한국의 세계관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감시자(police within)를 인정하지 않고 인과보응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는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부정직의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하루

물론 아무 사회도, 어떤 개인도 기독교적 세계관에 완벽하게 충실하지는 못하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이상이며, 기독교적 세계관 운동은 이미 주어진 세계관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염되어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비판하고 개혁하는 몸부림이다. 한국 교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문화포럼 대표이사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안개와 같은 인생

강원도 산간지역의 눈 소식에 대관령을 찾았다.

새하얀 눈을 보고 있으면, 어떤 따스한 감성들이 느껴진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명이 전해져 온다.
기습이 두근거리도록 말이다
폭설 탓에 방문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카메라를 들고 산중 깊은 곳까지 올라오는 사람도 없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함께 순식간에 시야를 가려버리는 안개로 둘러싸였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길과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언제 없어지고 변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긴 시간 동안, 내 시야를 가렸던 안개처럼 말이다.

새해에는 안개와 같은 순간을 살아가면서 빛 되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싶다.

- 대관령 산자락에서 사진가 정일권

CONTENTS 2012.1



시평_ 때를 논하다

02 한국 교회의 부패와 기독교적 세계관 손봉호

포토에세이

05 안개와 같은 인생 정일권

발행인의 글

08 다시 한번 도약하는 2012년 김승욱

커버스토리

10 성경적 미디어로 세상을 밝힌다 즐리온 미첼 류기철



기획 특집

미디어, 성경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18 우리가 미디어에서 읽을 수 있는 것 박진규

22 미디어의 트렌드와 영향력 안종배

26 영화를 보며 자신을 꿈꾸다 강진구

30 차가운 미디어 속에서 사람을 만나다 이승구

34 사이버 중독에 빠지지 않고 즐기는 방법 이재용

38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CMCA 6기 4조



즐리온 미첼

영국 에딘버러대학 기독교 미디어학과 교수이며 BBC에서 근무했다. 종교와 미디어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지사진 김도태

2012년 1월호 월간 WORLDVIEW 통권 139호

대표주간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김건주 편집위원 김승태, 김해정, 신현기, 유경상,

장유진, 차명실, 저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기자 임지연, 사진 정일권, 교정 변은미, 디자인 선한이웃, 인쇄 예원프린팅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02-754-8004

E-mail (사무국) info@worldview.or.kr (학회)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facebook.com/cworldview

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문화

42 김동영, 네잎 클로버의 노래 서성록

서평

48 교차로에서 나누는 세계관 이야기 신국원

뉴스

52 활동보고

알고보면 부드러운 남자, 손봉호의 빼있는 유머

54 목사의 유머 감각 손봉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 번 도약하는 2012년

◎ 김승욱(편집인, 중앙대 교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경제성장이 뒤따랐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재원도 함께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셨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 미국 등 개신교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로 확장시켰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한국 교회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교육기관 설립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의 초석을 놓았으며,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교회들이 앞장을 섰으며 음악 등 문화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세기에 한국은 경제성장과 교회성장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한국을 제3세계의 복음화에 크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기업의 성장과 한류 열풍은 우연한 현상도 아니고 한국인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최근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17%에 불과하던 미국 교회는 지난 200년 동안 60%가 넘는 정도로 성장했지만, 한국 교회는 20%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는 인본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신앙을 버리고 있고, 교회는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반대로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죄과와 우파로 나뉘어 극단으로 나가는 한국 사회를 화해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 해는 우선 가까운 가정의 영역부터 돌아보려고 합니다.
미디어가 바꾸어놓은 세상에서 크리스천 가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부부가 모두 일해야 하는 직장 풍조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등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과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유례없는 뜨거운 새벽기도운동, 말씀공부, 부흥집회, 치유사역 등에 열심임에도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삶과 신앙이 통합되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개인구원 위주의 신앙관과 현세적인 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그 결과, 물질주의, 권위주의, 체면문화 등 세속적인 문화에 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도약해서 미국교회처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예수천당을 선포하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서 크리스천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금주·금연운동이나 윤리운동을 넘어서, 각종 세상 문화와 사조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문화전쟁의 이면에는 세계관의 경합이 있기 때문 성경에 기초하여 문화의 각 영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월간지 『월드뷰』는 세상의 각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장입니다. 2012년 한 해는 우선 가까운 가정의 영역부터 돌아보려고 합니다. 미디어가 바꾸어놓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부부가 모두 일해야 하는 직장 풍조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등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과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관 동역회 회원 및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졸리온 미첼(Jolyon Mitchell)은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기독교미디어학과 교수이다. 케임브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BBC라디오와 BBC월드 서비스에서도 근무하였다. 2011년 부여에서 개최된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에 참석한 미첼 교수를 고신대학교 류기철 교수가 인터뷰하였다.

성경적 미디어로 세상을 밝힌다

졸리온 미첼 교수(Jolyon Mitchell)

☉ 인터뷰 류기철(고신대 교수)

인터뷰 전에 사진을 찍기 위해 화장을 하던 미첼 교수. 자기 평생에 사진 찍기 위한 화장은 처음 한다며, 매우 특별한 경험이라고 한껏 웃었다.

가정과 신앙 배경에 대해서 소개 해 주시지요.

아버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육학과 교육철학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배우이면서 연극 디렉터로 일하시는데 미국에서 사시죠. 제게 참으로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신앙심이 깊었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긴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된 건 열세 살부터였던 거 같아요. 여름 방학 캠프나 교회학교,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좋은 영향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말예요. 고등학교 때 역사와 종교를 특별히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 갖게 되었어요. 대학교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는 종교와 미디어에 대한 관심 폭도 커졌어요. 열아홉 살 때 미국을 방문해서 TV부흥목사(Televangelist)를 TV에서 봤어요.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케임브리지에서는 전통적이고 조직적인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를 미국 TV를 통해서 접하게 된 것이예요. 처음에는 바른 목적으로 시작했겠지만, 미디어라는 것이 그 다음 세대로 나온 TV부흥목사들을 타락시켰다고 생각해요. 베이커(Jimmy Baker) 목사도 감옥에 갓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절심했어요. 미디어는 교회를, 그리고 교회는 미디어를 이해하는데 서로 도움 주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이지요. 후에 내가 하는 모든 공부와 삶이 그 방향으로 연결되었죠.

미디어는 교회를, 그리고
 교회는 미디어를 이해하는데
 서로 도움 주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후에 내가 하는
 모든 공부와 삶이
 그 방향으로 연결되었죠.

BBC 월드 서비스(BBC World Service)*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BBC 라디오에서도 잠깐 일했고, BBC 월드 서비스의 영어 서비스 파트가 제가 전담하던 일이었어요. 그때 참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을 잘 청취하는 법, 마감 시간 맞추는 것의 중요성, 팀 멤버로서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일하는 법 등 말예요. 편집에서는 무엇을 글에 포함시킬지 보다 무얼 삭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죠. 지금도 가끔은 글을 기고하는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 도움 줄 때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맡아 책임지고 일하고 있지는 않아요.

미첼 교수님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고 방문하셨죠. 개인적으로 현대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주 흥미 있는 질문이네요. 제가 특별히 관심 가지는 부분은 ‘어떻게 가난을 퇴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000년에 UN이 정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이기도 하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녁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고,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못 갖추고 살아요. 세

계 70억 인구 중 14억의 인구가 하루 1달러 25센트 이하의 생계비로 목숨만 유지하며 살고 있죠. 당연히 그들의 건강이나 자녀 양육, 교육이 어떤 상황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가난을 퇴치하는 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또 쉬운 일만도 아니니, 문제겠죠.

밀레니엄 발전 목표와 연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니버설 교육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세계에는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인데도 못 가는 아이들이 6천 9백 만 명이나 있어요. 인류 전체를 볼 때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건강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매년 9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네 살도 되기 전에 죽어요.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는 병인데,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는 아기들도 많아요. 출산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시술을 받지 못해 엄마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머니가 없이 자라게 되죠.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난 탓에 겪는 이런 참혹한 현실이 세계는 오늘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큰 도전이라고 봅니다.

*BBC 월드 서비스- 영어 및 세계 각국 언어로 다른 나라들에 방송을 내보내는 BBC 방송사의 한 부서

또 다른 문제는 이 세상이 크게 분리되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종교, 신분, 경제 등의 여러 면에서 인간과 사회, 국가 사이에 큰 장벽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기독교에서는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UN에서도 관련된 여러 일을 하고 있어요. 가령 이제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비가 무료입니다. 또한, 방충망을 많이 보급해서 말라리아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이지요. 그 외 에이즈(HIV)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긴 해요. 현재 3,340만 명이 감염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매일 4,500명이 감염되고 있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엄청난데, 사람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려면 개개인의 이야기들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빌 게이츠는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등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개인뿐 아니라, 각 교회가 뜻을 모은다면 더 많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지요.

현재 교수님은 에든버러 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을 지도하고 계시죠. 근래 지도하신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 중 흥미 있는 논문이 있으면 조금 소개해 주시지요?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 지도는 매우 즐거워요. 제가 그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거든요. 「인터넷/온라인 종교」라는 한 논문을 소개할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교적인 양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 부분에는 세계 최초의 연구로 알고 있어요.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지요.

영화와 관련된 논문들도 꽤 많아요. 세르비아에서 영화가 어떻게 밀로스비치 대통령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를 연구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화 자체가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의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다루고 있죠. 어떤 논문은 기독교 영화와 비기독교 영화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기독교 영화가 일반 영화에서 배울 수 있는가를 말하기도 해요.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Jesus'라는 영화를 인도 조그마한 마을에서 전도용으로 상영할 때,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쓴 논문도 있어요. 영화 내용이나 제작 방법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문화와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한 거죠.

미국에서 자란 한국 학생은 미국 내 한인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분석해서 논문을 쓰고 있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기교보다는 멘토링의 관점에서 접근하더군요. 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실제로 듣고, 예배에 참여하며, 설교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말이지요. 또 뉴스 기사들의 보도 방법이 어떻게 선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있어요. 보통 교회를 알리려 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주로 보여주려 하죠. 그런데 어쩌면 그 반대로 보도되는 게 플러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세상과 사회에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일반인들에게 좀 더 와 닿지 않을까 싶어요.

근래에 쓰신 책, 『미디어 폭력과 기독교 윤리(Media Violence and Christian Ethics)』에 관해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책임니까? 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 책은 미디어 폭력이라는 주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폭력이라는 부분을 미디어에서 무조건 배제하거나 물어 버리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어떤 때는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과 상호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해요. 뉴스든 영화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디어 폭력은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적인 대응 방식에 관해 쓰고 싶었어요. 첫 번째 접근 방법은 환대(hospitality) 혹은 친선(friendship)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증언(witnessing)의 관점, 세 번째는 예배적 관점입니다. 이곳 한국도 북한의 폭력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제 책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나 이란과 이라크의 전

투였어요. 지금 시대는 모두가 저널리스트이고 리포터가 될 수 있는 세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요?

기독교 미디어와 세속 미디어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거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기독교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만드는 미디어, 기독교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미디어 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기독

첫 번째 접근 방법은 환대(hospitality) 혹은 친선(friendship)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증언(witnessing)의 관점, 세 번째는 예배적 관점입니다.

쟁도 다루고, 르완다에서 일어났던 인종말살도 다루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백만 명이 죽었던 비참한 사건이었죠. 책의 두 번째 장에서는 이런 폭력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목격자”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면서 증인으로 사는 길을 고민한 거죠. 세 번째 파트는 진리와 화해라는 장이에요. 가령 남아공에서의 한 미디어 종사자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그가 어떤 식으로 “진리”를 잘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인증문제를 해결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보여 주었지요.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인터넷 세계의 테러리즘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다

교적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영화나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일반 저널리스트들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비난하거나 폄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두 부분을 너무 예리하게 나눌 필요도 없고요. 일반 미디어 종사자들을 향해 적절한 비판도 필요하겠지만, 도움과 격려도 있어야지요. 사하라 사막 이남이나 아프가니스탄, 중동지역 등에서 일하다가 죽어간 저널리스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아요. 혹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었다 해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권력자들 앞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일종이라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미디어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흘러갈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이 누구나 리포터가 될 수 있는 인터넷 미디어 세상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미디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건 매우 재미있는 일입니다. 미디어는 사실 천천히 발전해 왔는데, 그 과정에 때로는 엄청난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인쇄 기술의 발달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인쇄술 덕분에 루터의 목소리는 더 크고 멀리 퍼질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종교개혁도 당겨질 수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쇄 기술이 종교개혁을 움직이는 힘이었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기술이 발전했죠. 라디오, TV,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 등.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과거 미디어의 전환점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컸던 반면, 최근 인터넷의 발달에서는 교회가 빠져 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요. 나름 힘을 발휘하고 있긴 하지만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죠. 종교가 지배하는 과거보다는 나은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나요? 세상의 많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를 어떻게 잘 사용할지, 교회가 중심이 되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정의와 평화, 화해가 기독교인들을 통해 이루어져야지요.

아시아시피 한국은 지난 60여 년간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천 미디어에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분단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분단 상황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아일랜드의 갈



등에 대해 얘기해 보지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오랫동안 대치해 온 두 사회집단의 문제는 과거 ‘적’들이 행한 만행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두 집단 모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 왔음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편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상상해 보며, 각 구성원이 서로 다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진리와 화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 추구는 좀 전에 말한 증인으로서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만,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모든 것이 과연 진리인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걸러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젠가 남한과 북한도 하나가 될 것인데, 한 나라가 되었을 때

는 어떠한 기독교 미디어 인으로 살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저도 동독과 서독이 통일 직후, 기념 마라톤 행사를 취재했었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흥분의 도가니였거든요. 무거운 테이프 녹음기를 들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과 같이 달렸는데, 얼마나 새로운 느낌이던지요. 6개월 전만 해도 그 길을 걸으면 총 맞아 사살되었을 군사 지역, 그곳을 제가 뛰어다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든 생각은 ‘이야,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수도 있구나!’였어요.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계속 소망을 품고, 통일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화해하고 같이 평화를 이루어 갈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각종 사건이나 부패 등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정도가 과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는 현실과 다릅니다. 사회에서 부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그걸 다루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가 싶죠? 독재 국가의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정부와 사회 모두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늘 좋은 면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 주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 되죠. 부패도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수의 문제임을 반증하면서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뉴스에서 주요 인사들의 부패가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일까요? 분명히 어둠의 거래가 있었겠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으니, 그 뒤에 어떤 더 큰 문제가 있

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시대라는 요즘, 교회나 신학교가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스마트폰의 ‘smart’가 반드시 똑똑함과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잠언 1장에서 가르쳐 주듯,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천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중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미디어 영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 때 중요한 세 가지는 기도와 소망,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독서를 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도 중요해요. 참,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즉 스스로에 대해서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인터넷의 부정적인 면보다 좋은 점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요. 인터넷에서 만들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세대 간 신학(intergenerational theology)이 이뤄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어른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어른들만 청소년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거든요. 다만, 중독문제는 개인적인 사용보다는 커뮤니티와 가족, 그룹 중심의 사용 기반을 더 늘리고 방향을 잡아 가면 좋겠습니다.



류기철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조교수이다. 미국 캘빈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 신약학, 목회상담을 가르치고 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회원으로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기획 특집

미디어, 성경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나꼼수’, ‘나가수’, ‘도가니’, ‘K-Pop’, ‘디도스’, ‘스마트폰 폐인’……

한국 사회의 현재를 보여주는 단어들이입니다. 일상과 미디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진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디지털’이란 단어가 생소해 ‘웨어블’이냐고 반문하던 이들이 스마트하게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우리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면을 가진 동전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미디어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호를 준비했습니다.

- 18 우리가 미디어에서 읽을 수 있는 것 박진규
- 22 미디어의 트렌드와 영향력 안종배
- 26 영화를 보며 자신을 꿈꾸다 강진구
- 30 차가운 미디어 속에서 사람을 만나다 이승구
- 34 사이버 중독에 빠지지 않고 즐기는 방법 이재용
- 38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CMCA 6기 4조





우리가 미디어에서 읽을 수 있는 것

박진규

미디어가 불편하다

신앙인들에게 미디어는 언제나 불편한 대상이다. 미디어가 대변하는 세속적 가치는 기독교가 꿈꾸는 가치와는 너무 달라 보인다.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춰진 재미와 가벼움은 복음이 말하는 삶과 죽음, 죄와 구원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도 거리가 느껴진다. 그렇다고 미디어를 철저히 외면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건 아예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 삶에 미디어가 제공하는 순기능과 유익이 전혀 없지도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신앙인의 태도로서도 마땅할 수 없다.

내게도 그렇다. 신앙인으로서, 또 미디어 연구를 직(職)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둘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건 수월치 않다. 미디어와 종교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대해 연구하게 된 것도 그런 딜레마에서 시작되었다. 미디어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이나 이분법적인 회피로 일관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도 느꼈다.

**미디어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우리 공동체의 성찰과 변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도 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교회에 대한 언론보도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 또 인터넷 공간에 비춰진 개신교의 모습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의 결론은, 미디어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우리 공동체의 성찰과 변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미디어의 다음 두 가지 모습에서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귀신이 판치는(?) 대중문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돌아오면 텔레비전은 온갖 ‘납량특집’ 드라마를 쏟아내며 더위를 쫓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떠들어댄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름만 되면 수많은 호러장르의 작품들이 핏빛 물든 포스터를 앞세워 극장마다 걸리고, 그 중 한 두 작품은 흥행에서도 꽤 좋은 성적을 보인다.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은 으레 귀신, 혼령, 천사, 악마, 죽음, 임신, 엑소시즘, 사후세계 등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어 흥미를 자극하고 이를 공포라는 인간의 원초적 감각과 연결시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최근에는 “퇴마 현상”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케이블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이런 공포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못하다. 복음이 말하는 영적 세계와 비교할 때 이런 모습들은 여러모로 부정확할 뿐 아니라 많은 왜곡과 과장, 허구로 가득 차 있다. 더구나 많은 공포물들이 기독교를 비하하기도 한다. 기독교가 말

하는 영적 세계관, 기독교의 많은 상징들, 기독교 신앙, 기독교인들의 행태 등이 비틀리고, 비꼬아지고, 때로는 놀림거리가 되기도 한다. 한 개신교 단체는 이런 모습을 두고 “귀신이 판치는 대중문화”로 규정하기도 했다.

유독 개신교에 비판적인 미디어

또 하나 불편한 것은 유독 개신교에 비판적인 언론의 태도이다. 교회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개신교의 교세가 확장되고 그 힘이 강해지는 것과 비례해서 미디어의 비판 강도는 점점 더해갔다. 2008년부터 2년 치 일간신문의 종교면을 분석한 바 있는데, 원래 신문들의 종교면은 비판보다는 이상적인 사례를 발굴해 호의적으로 소개하는 기사 위주라는 특징이 있음에도 개신교에 대해서만은 예외였다.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호의적 기사가 각 종교 기사의 80%를 넘는데 비해 개신교에 대한 호의적 기사는 50%가 채 안 되었다. 나머지는 비판적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한국교회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오랜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교회와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와 불투명한 재정, 종교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비상식적 행위 등이 고발되곤 한다.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공격적으로 전도하려는 독선적, 배타적인 모습도 자주 도마에 올랐다. 몇 해 전 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는 예수의 신성을 포함한 기독교 교리 자체를 들어 한국교회의 근본주의적 배타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미디어와 종교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사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



니다. 지구촌 곳곳의 미디어들이 호감이든 비판이든 종교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가 사회 권력으로서 위세를 떨쳤던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적 시선이 특별하지 않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현상이 미디어의 반 기독교적 악의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런 단편적 평가보다는 왜 미디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미디어는 그 속성상 경제적이윤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반발을 사 위험을 초래할 만한 내용은 가급적 꺼리게 된다. 즉,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 대한 뼈뚫한 묘사는 이미 그러한 인식이 사회 내에 널리 퍼져 있어서 크게 새로울 것도, 위험할 것도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의 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미디어가 여전히 종교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종교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거

두지 않는 것은 사실 그 관심의 역설적 표현일 수 있다. 그건 세속사회에서 종교가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세상이 종교의 역할을 아예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곳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새로 읽는 미디어

이렇게 볼 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미디어의 두 가지 모습도 다시 읽어야 한다. 먼저, 개신교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종교면 분석을 살펴보면 개신교 비판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타종교 및 사회에 대한 배타성,” “종교 내 권력다툼,” 그리고 “교회 내 성장주의, 물질주의”였다. 세상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참 아쁘다.

그렇다면 미디어가 바라는 종교의 모습은 무엇일까? 종교면의 호의적 기사들은 교파에 관계없이 다양성, 관용, 배움, 화합/통합 등의 가치가 담긴 모습을 주로 다루고 있다. 약자의 편에 서고, 불의에 저항하고, 사회의 통합과 화해에 기여하는 종교를 칭찬한다. 종교 사이의 조

**진정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 모습을 이해 못하는 세상을
원망하기만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에 실망했는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화를 중시하고,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와 종교인의 모습에 환호한다.

미디어가 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은 세속사회가 한국교회에 요청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재 모습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까지 담겨 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목소리인 셈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세상이 바라는 것은 회개와 갱신을 위한 교회내부의 노력이 주문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의 노력이 성취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 짐작하게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초월적 존재와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미디어의 모습도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 영적 세계에 대한 세상의 절절한 관심을 또렷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첨단 과학으로 대변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 세계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것 같지만, 여전히 영적인 현상과 구원에 대한 물음은 이들의 궁극적 관심사라는 걸 말해준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으며, 우리가 들려줄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이 시대의 “기대”와

소통의 도구로서 미디어

나는 미디어에서 종교에 대한 세속사회의 “기대”를 읽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종교적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적 시선은 결국 종교의 존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비판의 목소리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다. 세속사회의 생각과 가치를 매개하는 미디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 시대가 종교에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노력에 힘을 더해준다. 삶 그리고 죽음, 죽음 이후의 삶, 영적 세계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우리 이웃들의 존재적 질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상은 종교가 “뭔가 다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물질주의, 성장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파괴되어 가는 정신, 영성, 공동체에 대한 갈증을 보여준다. 종교가 그런 가치들을 생산하여 사람들에게 다시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기대가 복음이 말하는 바와 다르지 않음도 읽을 수 있다.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는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높다. 진정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 모습을 이해 못하는 세상을 원망하기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에 실망했는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는 그런 노력에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성경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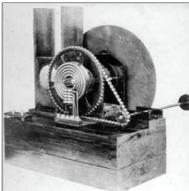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의 트렌드와 영향력

안중배

미디어의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



처음엔 몸짓이나 소리, 소리에 뜻을 부여한 말(language), 말을 보여 주기 위한 그림인 상형문자 그리고 글자, 이제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미디어로 책이 자리 잡았다. 안토니오 무치는 사람의 소리를 전기로 전달하는 전화기(왼쪽 그림)를 발명하였고, 종이로 만든 신문은 사회상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소식지 역할을 하였다. 이후 전파는 무선을 타고 라디오방송시대를, 이어 최초의 텔레비전(오른쪽 그림)이 등장한다. 1925년 영국의 J.L. 베어드가 텔레비전 공개실험을 한 후 1936년 영국의 BBC는 세계 최초로 TV 방송을 시작한다. 이후 TV, 신문, 잡지, 라디오는 4대 매체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90년대 인터넷 보급의 활성화로 컴퓨터와 인터넷 만나면서 정보화시대를 맞는다. 인터넷의 확산은 개인의 미디어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기존의 4대 매체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WEB2.0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블로그나 UCC와 같은 1인 미디어가 등장하여 누구나 인터넷에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게 된다. Wibro, HSDPA, LTE 등 무선통신기술은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통과 통신의 욕구를 만족하게 한다.

미디어의 최근 트렌드는 어떠한가?

기존의 책상에 앉아서만 하던 일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이동 중에도 가능하여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을 창출했다. 스마트폰과 같은 기능을 하는 미디어로 PC 진영에서는



스마트폰이 가져온
스마트 혁명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의 시대’로
사회의 일상을 변화시켰고,
마침내 ‘연결 경제의 시대’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태블릿PC가 등장했다. 인터넷이 촉발한 디지털 미디어 혁명으로 미디어는 점차 개인화되었다. 새의 재잘거림이란 의미의 ‘트위터’와 친구맺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다자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확산하고 있다. SNS는 개개인의 소식을 전달하며 친목을 다지는 역할도 하여 세상 곳곳의 소식들을 재빠르게 전달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SNS를 포함한 미디어에 담기는 글, 말, 소리, 음악, 사진, 동영상과 이들의 결합물을 총칭하는 콘텐츠(Contents)가 중요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소셜미디어에 주로 접속하는 기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소셜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소통하며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소셜미디어로 사람들의 친화욕구와 자기표현욕구는 증대했지만, 상호 이해보다는 새로운 혼란과 혼동, 오해를 낳기도 한다. 스마트폰이 가져온 스마트 혁명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의 시대’로 사회의 일상을 변화시켰고, 마침내 ‘연결 경제의 시대’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개인을 위한 위치기반의 맞춤형 광고의 등장, 콘텐츠를 소유하여 소비하는 것이 아닌 접속을 통한 콘텐츠의 소비, 고정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닌 임의의 웹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러 이종 단말기 간에 끊임없는 방송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 등은 생활의 편리를 더해주고 있다.

미디어와 콘텐츠의 영향력은 얼마나 클까?

스마트미디어 사회의 개인은 각자의 영향력이 네트워크의 효과로 말미암아 과거에 비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자신이 소지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PC로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생성하여 친구, 지인들과 즐길 뿐 아니라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지구촌의 네티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 끔찍한 연쇄 테러사건을 많은 사람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테러를 자행한 극우파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은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에 수도 오슬로 정부청사가 있는 도심에서 폭탄을 터트리고 총기를 난사했다. 이 사고로 무고한 생명 76인이 사망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범인이 평소에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여 이기는 게임을 즐겼고 실제 범행 현장에서의 수법 이와 매우 흡사하다는 데에 있다.



미디어를 통해
어떤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고,
향유하는가에 따라
스마트 사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폭력적인 게임에 중독되어 현실과 실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유사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최근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한글의 날을 맞이하여 모 방송사에 '말의 힘'을 실험한 영상에 의하면, 흰 밥알을 밀폐된 두 개의 용기에 각각 넣고 한 용기에는 좋은 말만 해주고 또 다른 용기에는 나쁜 말만 해 준 뒤에 4주 후 그 결과를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좋은 말만 해준 용기에는 흰 곰팡이가 예쁘게 피었다. 그러나 나쁜 말만 해준 용기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핀 것이 아닌가? 말이 가진 위력과 나쁜 말이 어떠한 악영향을 가져올지 짐작하게 한다. 24시간 미디어에 노출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미디어를 통한 좋은 말, 좋은 콘텐츠의 확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미디어를 통한 유해 콘텐츠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교육적이고 유용한 정보와 건강한 재미를 주는 건전하고도 유익한 콘텐츠를 확산시키고자 문화운동인 클린콘텐츠 운동이 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SNS를 포함한 미디어의 건강한 사용과 건전한 콘텐츠 소비를 통해 아름다운 스마트 세상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의 웹사이트(www.cleancontents.org)를 통해서 매월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출판, 교양, 오락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인터넷, 광고, UCC 등 12개 장르별 우수 클린콘텐츠가 소개된다. 이를 활용하여 좋은 콘텐츠를 선별하여 즐기고 자신의 의견과 함께 SNS에 올리는 등 좋은 콘텐츠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어린 이부터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 및 일반인은 물론 노년층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국 최대 규모의 클린콘텐츠 UCC 공모전에 참여하여 좋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확산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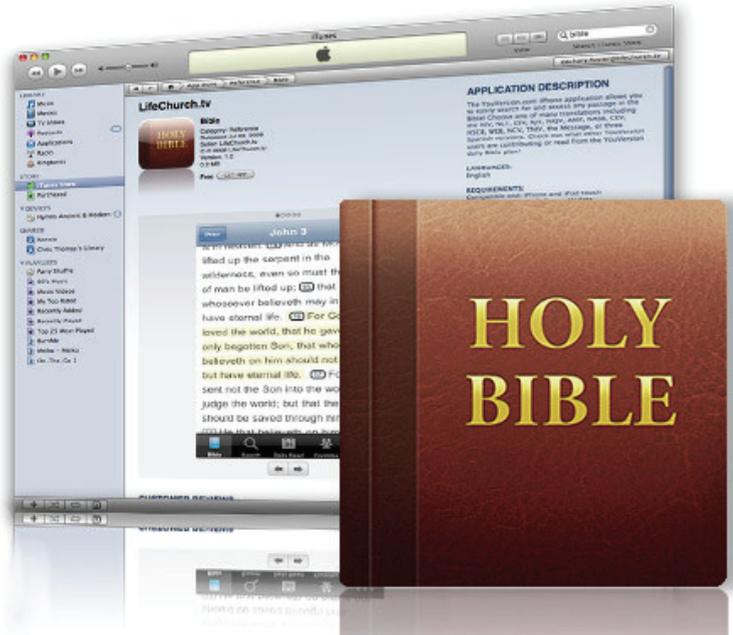
스마트폰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일상생활의 더 많은 부분을 양 방향으로 문자메시지, 영상전화, 사진, 동영상 등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하여 게임이나 영화, 음악, 방송, 신문, 소셜커머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콘텐츠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미디어의 확산이 때론 모두에게 장점으로만 작용할 수 없는 실상이다. 사생활 침범, 사행성, 음란성, 폭력성 및 음해성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어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의 문화생활과 정서, 그리고 가치관과 행동까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해 어떤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고, 향유하는가에 따라 스마트 사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스마트미디어를 기독교인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스마트폰과 SNS로 온종일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되어 이전보다 타인과의 만남을 수시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활용하면, 기독교인은 스마트 미디어인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와 SNS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잘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관계 전도와 신앙과 영적 교제 시간과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일상 생활의 자투리 시간 즉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등을 찬송가, 성경퀴즈, CCM, 말씀묵상을 돕는 앱 등으로 평상시에도 경건 생활과 영적 생활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다.

교회 및 선교단체들은 스마트시대에 맞는 홍보능력을 갖춘 스마트미디어와 SNS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기독교인의 생활 윤리를 정립하고 전파해야 한다. 잘 쓰면 약이 되고 못쓰면 독이 되는 것처럼, 각종 스마트 미디어와 SNS를 사용하는 기



독인들의 선 순환적 활용으로 스마트한 삶의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또한, 교계에서는 스마트폰과 SNS 등을 목회에서의 적극적 활용을 긍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심방과 야외 행사에서 교적부나 심방일지 등을 열람하고 즉각적인 기록과 업데이트하는 스마트 목회가 가능하다. 설교말씀 앱을 개발하면 누구나 다운받아 설교를 들을 수 있다. 기독교 언론사들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스마트TV 등에서 독자 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앱 서비스 개발과 공급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과 기독교계 및 기독교언론은 공히 협력하여 이 세상에 기독교적인 선한 가치관을 담은 양질의 클린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데 동참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미디어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라는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미디어와 콘텐츠의 사용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안중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미국 UCLA 디지털미디어콘텐츠 POST과정을 졸업하였으며 클린콘텐츠 국민운동본부의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클린 UCC제작과 건강한 SNS 사용법』, 『나비 효과 콘텐츠 마케팅』, 『스마트미디어 시대 방송 통신 정책과 기술의 미래』 등이 있다.

영화 속에서 또 하나의 자신을 찾는 사람들

영화를 보며 자신을 꿈꾸다



◎ 강진구

이태석 신부와 앙드레킴을 만든 영화

지난 7월 15일, 환갑을 넘긴 두 쌍의 부부가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향했다. 여행의 목적은 노년의 삶을 즐기기 위한 관광이 아닌 봉사였다. 피부과병원을 운영하던 유병국, 김혜경 씨 의사부부와 대기업 기술연구소장을 지낸 송기섭, 이재야 씨 부부는 모두 남수단에서 이태석 신부의 뒤를 이어 2년간 현지인들을 돕는 사역을 할 계획이다. 이들이 떠나면 아프리카에서의 봉사활동을 꿈꾸게 된 데에는 이태석 신부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담은 영화 <울지마 톤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태석 신부 또한 한 편의 영화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성당에서 본 성자 다미안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는 그를 끝내 사제의 길에 들어서게 하였고, 아프리카 수단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처절히 버려진 한센병 환자들 곁으로 다가가도록 인생을 바꾸었다. 이 신부가 어린 시절 본 영화가 정확히 누가 언제 만든 영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최근에 다미안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폴 콕스(Paul Cox) 감독의 1999년 작품 <몰로카이: 성인의 이야기(Molokai: The Story of Father Damien)>은 아닌 듯하다. 다미안 신부는 하와이 섬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 또한 그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로마교황청은 그의 사랑의 공적을 기려서 성자로 추대한 바 있다.

구수환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는 수단의 가난한 한 사람들을 돌보다 간암으로 생을 마감한 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죽음을 다룬 감동의 영화다. 영화는 시종일관 '왜 그가 그 먼 곳까지 가서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신부 어머니의 말대로 한국에도 의술을 통해 돌볼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야 했을까? 또한, 사회봉사에 인생의 의미를 둔 의사로서의 삶에 그치지 않고 왜,

굳이 신부가 될 필요가 있었을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내 삶에 영향을 준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눅 9:48),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 10남매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고귀한 삶.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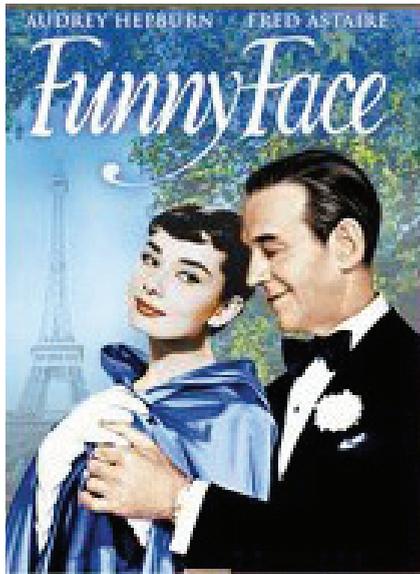
영화는 두 가지 기억을 따라 스크린 위에 영상을 쏟아낸다. 하나는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가 저술한 자전적 사역이야기를 담은 저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에 언급된 이 신부의 삶을 추적하고, 다른 하나는 이 신부의 죽음 이후 지인들의 증언을 담아낸다. 그 가운데서도 이 신부가 사랑했던 수단 현지인들의 기억은 과거에 묻힌 추억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임을 카메라는 숨김없이 담아낸다.

우는 것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원주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 신부가 생전에 가르쳤던, 수단에 하나밖에 없다는 톤즈의 학생 브라스밴드가 장례행렬에 나설 때 음악은 사랑의 기억을 일깨운다. 수단 학생들의 입에서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노래 ‘사랑해 당신을’을 부르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다. 학생들은 어둠이 둘러싸인 학교를 떠나지 못한 채 이 노래를 부른다. 아름다운 죽음에 이 노래가 이토록 어울릴 줄은 미처 몰랐다. 이 학생들은 평생, 이 한국어말로 된 노래를 부르며 이 신부를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영화의 힘을 믿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화는 현실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아울러 관객들을 꿈꾸게 한다. 우리는 영화를 보며 현실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우리는 영화의 힘을
믿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화는 현실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아울러 관객들을
꿈꾸게 한다.
우리는 영화를 보며
현실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올지마 톤즈〉를 보며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이기적인 내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주인공의 삶에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다. 그리고 어떤 관객들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 것을 다짐하며 극장 문을 나서는 것이다.

한국 최고의 패션디자이너로 이름을 떨친 앙드레 김은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6.25 직후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 〈파리의 연인〉을 5번이나 보았다고 했다. 이 영화는 당대 최고의 패션디자이너였던 지방사가 디자인한 옷 50여 벌을 오드리 헵번이 입고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영화였다. 이 영화를 본 앙드레 김은 독학으로 패션디자이너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가 영화속에서 보았던 것이 비단 오드리 헵번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미래에 의상디자이너가 된 자신의 모습이 등장하는 또 한 편의 영화가 제작되고 있었다.

일본을 만든 아톰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만화주인공은 ‘아톰’이었다. 대학에 와서야 비로소 이 만화의 제목이 ‘우주소년 아톰’이 아니라, ‘철완(鐵腕) 아톰’이며 일본

의 만화가인 테즈카 오사무가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일종의 배신감 비슷한 것을 느끼기도 했다. 어린 시절 내내 나의 마음을 빼앗았던 수많은 만화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닌 일본 것이었다는 데서 민족적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문화를 공부해가면서 아톰이라는 만화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톰은 일본인 자신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본인은 아톰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창조성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었다.

아톰은 1952년 일본의 만화잡지 ‘쇼넨(少年)’에 연재된 이후로 63년에 일본의 첫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제작, 방송되어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던 기념비적인 만화다. 한 과학자가 자신의 아들이 죽자 슬픔을 덜고자 아들처럼 생긴 꼬마 로봇을 만든다. 그러나 이 과학자는 아톰이 인간처럼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실망한 나머지 그만 내다 버린다. 이웃 과학자인 텐마박사(한국에서는 코주부 박사로 알려짐)는 버려진 아톰을 데려다 양아들로 삼고 양육한다. 그러나 아톰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고 항상 자신이 누구



**아톰으로부터 배운 자신의 정체성, 즉 ‘작은 것이 강하고 아름답다’라는 가치는
일본 산업을 일으키는 중심 테마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에서 작지만 견고하고 오래 쓰는 자동차는 당연히 일본 자동차란 인식은
바로 아톰의 정체성을 획득한 이후에 생긴 것이다.
영화가 한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그 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준다.**

인지에 대해서 텐마박사에게 묻는다. 그러던 어느 날 지구를 공격하는 거대한 로봇과 싸워 이기면서 아톰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다. 작지만 10만 마력의 힘을 가진 강하고 아름다운 로봇이란 사실을 말이다. 아톰은 이제 소외받고 멸시당하는 입장에서 주위로부터 칭송받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

중요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이 아톰이라고 하는 만화 캐릭터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라는 사실 때문에 세계열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원자폭탄을 맞는 바람에 도저히 일어설 길이 없다고 믿으며 좌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일본인들에게 아톰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톰은 지구를 침략하는 악하고 거대한 로봇과 싸워 이김으로써 작은 것이 강하고 아름답다는 새로운 면목을 또한 보여주

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이며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은 일본인은 그 후로 놀라운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톰으로부터 배운 자신의 정체성, 즉 ‘작은 것이 강하고 아름답다’라는 가치는 일본 산업을 일으키는 중심 테마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에서 작지만 견고하고 오래 쓰는 자동차는 당연히 일본 자동차란 인식은 바로 아톰의 정체성을 획득한 이후에 생긴 것이다. 영화가 한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그 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준다.



강진구 고신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차가운 미디어 속에서 사람을 만나다.

이승구

차가운(?)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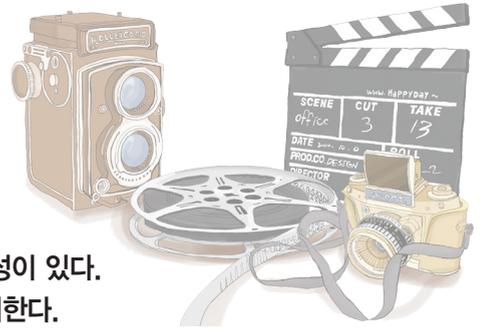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의 TV 프로그램은 10년 전과는 정말 전혀 다른 모습이다. 과거에는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이야기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드라마나 연애 오락프로그램은 자극적인 대사와 행동 그리고 자막으로 채워지고, 자신이나 타인을 비하하는 행위를 통해 억지웃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재미가 있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기존 방송 이외에 종합편성 채널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방송사 간의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생각된다.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진 시청자들은 점점 더 강한 것을 기대할 것이고, 시청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미디어는 자극의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

귀로 듣는 것은 3일 후엔 10%만 남고, 본 것은 20%, 듣고 본 것은 65%가 남아, 청각만 사용한 것에 비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6배 이상 기억한다고 한다. 이처럼 미디어가 인간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미디어에 둘러싸인 채 살아간다.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거리를 걸어도, 눈길을 닿는 곳마다 미디어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온 영상 이미지들은 소리 없이 우리 뇌에 저장되고,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순간 착각일 수도 있다.

미디어는 중요한 만큼 위험하고, 위험한 만큼 중요하다. 진실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미디어가 진실을 진실 되게 이야기했는지, 부분의 진실을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지는 않는지, 재미있으면





휴먼다큐멘터리를 감독할 때마다 갖게 되는 부담이 있다.
영상을 통해 자칫 주인공의 삶이 미화되어 우상이 되거나,
반대로 누구나 겪는 일로 여겨지는 감동 없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열정이 앞서 무리하게 촬영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염려한다.

좋은 것이고 재미가 없으면 나쁜 것이라는 틀을 갖도록 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휴먼다큐. 사람의 진성을 담는다.

다큐멘터리 장르의 재미가 부족하는 이유로 소외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방송되는 시간을 봐도 그렇고, 시청률을 봐도 그렇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어느 장르보다 진성을 담고자 노력해 왔다. 현실 도피적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과는 달리 인간의 인생이 지닌 그 자체의 풍부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인생에 대한 진중한 이야기를 던져왔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폭넓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휴먼다큐멘터리를 감독할 때마다 갖게 되는 부담이 있다. 영상을 통해 주인공의 삶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칫 주인공의 삶이 미화되어 우상이 되거나, 반대로 누구나 겪는 일로 여겨지는 감동 없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촬영으로 인해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열정이 앞서 무리하게 촬영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염려한다.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진실에 앞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 촬영윤리기 때문이다. 카메라와 감독이 주인공에게 어떤 의도에서든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

2011. 대한민국 아저씨. 꿈꾸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항상 가슴 설레고 떨리는 일이

다. 마치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일까? 그런데 최근 아저씨와 관련된 작품을 시작할 때는 큰 기대감이 없었다. 40대 아저씨들의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루어졌고, 게다가 누가 아저씨들 이야기를 좋아할까 싶었다.

그런데 아저씨만큼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도 없다는 것이 작품은 마무리한 지금의 생각이다. 다큐멘터리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저씨,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런데 정신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힘겨워한다. 경제적 압박과 불안한 직장, 일상의 권태로움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할 일이 많고, 살아가야 할 날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런 아저씨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삶의 횡포에 잃어버렸던 꿈을 찾아 나선다. 결코 쉽지 않은 그들의 도전 과정을 통해 오늘을 사는 보통의 아저씨들의 인생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대한민국 아저씨로 사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이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아온 아저씨, 그들은 가족들을 위해 온종일 생활의 터전에서 땀 흘리며 노력하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들은 꿈을 잊은 채 살았다. 그런데 지난 시절 청년의 꿈을 다시 꺼내 보는 것만으로도 아저씨들은 청년이 되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 담아내는 동안 내내 가슴이 뜨거웠다. 젊음 가득했던 시절의 꿈을 향해 다시 도전하는 그들의 얼굴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기를 되찾아갔다.

특히 지금은 광주에서 식품 재료상을 운영하고 있는 고교 야구 스타 박기수 씨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다. 박기수 씨는 초등학교 학년 때부터 야구만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프로야구선수 시절, 연습 중에 무릎이 꺾기는 부상을 당해 연간 해오던 야구선수 생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야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그에게 은퇴는 죽음보다 무겁고 힘겨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큰 좌절의 순간 그에게 힘을 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로 인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의 큰 형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었다.

“그때 엄청 좌절했지요. 죽을 생각했는데 그때 형님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형이 절 위로해 줬고 힘을 줬죠. 형님이 정말 고맙죠.라며 형에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했다.”

그는 은퇴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달걀장사를 난생처음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힘들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일이기 그는 묵묵히 견디어 냈다. 장사 시작한 지 년 동안은 엄청나게 고생했다. 그 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며 지금까지 생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도 각자의 고단한 생활 가운데 대화는 거의 없는 상태, 일이 끝난

후 집에 들어오면 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평범한 아저씨가 그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에게 야구에 대한 도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년 경남고 대 군산상고 결승전 경기를 추억하며 그 경기의 주역들이 년 만에 다시 붙게 된 것!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최동원, 김용희, 김성한, 김봉연 선수들을 필두로 전설의 선후배 선수들과 다시 경기장에서 뭉쳤다. 돈이 나오는 것도,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바쁜 일상을 쫓개 연습하면서 난데없는 도전에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연애하는 기분처럼 들떠 있었던 박기수 씨. 그의 눈빛엔 고교야구 시절의 박기수가 되살아나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모두에게 감동으로 전달되었다. 우선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했던 나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큰딸 경선 씨가 “예전에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기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빠가 웃으니까 다 웃을 수 있는 거 같아서 좋고, 집에 오는 게 더 좋아진 것 같아요.”라며 가족의 행복이 다시 찾은 것에 정말 기뻐했다. 가족에 있어서 아빠가 변하는 모습이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누구보다 박기수씨가 느끼고 있었다. 박기수 씨도 매일매일 새롭게 변하는 자신과 가족들에게서 더욱더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같았다.

다큐, 사람을 만나다.

‘아저씨’를 주제로 한 이번 작품을 시청한 이들의 반응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 차가운 미디어가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이다.



평범한 이들이 만들어내는 인생 이야기는 드라마와 달리 사람을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더욱 열심히 찾아내야 한다. 차가운 미디어에서도 사람의 온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영상을 보고나니 요즘 들어 아빠에게 무관심했던 나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고 아빠한테 더 잘 해 드려야겠다.” -권혜진 님-

“다큐멘터리 재밌게 봤습니다. 참 공감아 갑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집에 오면 아무도 안 반기고 혼자 인 것 같다고 할 때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항상 인 사만 하고 제방 가기만 바빴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이들 공감했을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려고 자신의 꿈은 뒷전으로 하던 아버지들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도 받았고 왠지 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밌고 유익했던 다큐였습니다.” -차운호 님-

“아버지의 옛꿈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네요.”

-김은진 님-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시청자들이 보인 반응 속에서 미디어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과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미디어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평범한 이들이 만들어내는 인생 이야기는 드라마와 달리 평범해 보이지만 사람을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점점 더 삭막해지는 세상이다. 진실한 이야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 ‘차가운 미디어 속에서 사람을 만나다.’라는 제목처럼 이 시대에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더욱 열심히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자주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가운 미디어에서도 사람의 온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승구 PD는 다큐멘터리 전문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 사단법인 한국 독립 피디 협회 정회원 (PD 권익위원)이며 MBC에서 프리랜서 독립 피디로 활동하고 있다. MBC 메디컬 휴먼 다큐멘터리 닥터스, MBC 프라임 등을 연출했다.



사이버 중독에 빠지지 않고 즐기는 방법

이재용

“모든 새로운 미디어는 인간을 변환시킨다.”

마셜 맥루한의 말이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세기의 년 동안 사람들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급격하고 빠른 기술혁명을 겪었다. 또한 최근 년은 그 가운데서도 더욱 급격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혁명을 경험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난 새로운 첨단미디어, 즉 컴퓨터/인터넷과 결합한 사이버 미디어는 과거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욱 심각한 패러다임의 도전을 주고 있다.

맥루한은 미디어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사람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주목하는 시각은 미디어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기계나 도구,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모든 책임과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만든 기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 종이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 칼을 대신하고, 원자폭탄이 만들어 지는 기술혁명 속에서 인간의 삶은 급격히 변했다. 통신의 발달,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하나의 문화 생활권이 된 지구촌에서 인간은 첨단기술을 운영하고 지배하며 살지만 동시에 첨단기술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에서 니콜라스 카는 컴퓨터 스크린이 엄청난 물량과 편리함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쓸어버린다고 표현했다. 일상생활 깊이 침투한 사이버 미디어는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인식과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며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장악하고 있다.

하드웨어 기술이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만들어 낸 첨단 사이버 미디어가 보이는 역

기능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독의 형태로 나타난다. 온라인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채팅중독, 온라인커뮤니티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이 그것이다. 이런 중독 현상은 의지나 절제력이 약한 청소년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세상은 책상 위 고정 된 모니터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처럼 휴대용 모니터로 확장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이버 미디어를 완전히 끊고 살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모든 문화와 인프라가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와 깊이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사이버 미디어를 떠나 살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심각한 소외를 각오해야 한다. 사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제의 삶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도 우상이 된다. 돈과 물질, 섹스와 권력 같은 고전적 우상들처럼 사이버 미디어가 우리들의 시간과 정신을 빼앗아 가는 상황이다.

문화, 정치, 교육, 경제 서비스들 대부분이 온라인화가 진행되었고 진행 중이다. 인류가 쌓아온 정보와 지식 역시 책과 신문 같은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디지털 아카이브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음성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선호하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놀기보다 인터넷 게임을 즐긴다. 현대인은 온 종일 모니터를 쳐다본다. 일을 할 때도, 오락을 즐길 때도, 관계를 구축할 때도. 부모나 친구의 얼굴보다 모니터를 더 많이 쳐다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의사소통을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제의 삶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도 우상이 된다. 돈과 물질, 섹스와 권력 같은 고전적 우상들처럼 사이버 미디어가 우리들의 시간과 정신을 빼앗아 가는 상황이다. 인간이 주인이 되지 않고 모니터가 주인이 될 때, 사람들은 그 허상 속에서 자신을 탐닉하고, 애써 자기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하며, 그 공간에 몰입되고 중독 되어 간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이버 환경에 중독 되지 않고 올바르게 즐길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철저한 자기객관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이버 미디어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을 경우, 그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현실적 삶에 대한 충실도와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생활의 건강성을 진단할 힘이 필요하다. 현재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사이버 미디어에 중독되었는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중독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다른 제 3자의 잘못이나 핑계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시인하는 자기객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문화를 바라볼 때 이 세대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고 그 흐름을 주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는 마음가짐이 사이버세계를 대할 때도 필요하며, 그러한 시도 가운데 중독에 빠지지 않고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된다.

둘째,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생활태도를 가져야 한다.

현실의 삶이 극단적으로 자신을 몰아갈 때, 너무 바쁘거나 혹은 너무 지루하거나, 절망적이거나 혹은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그 방심의 틈으로 중독이 파고든다. 반면 건강한 삶의 역동성을 가지는 것은 사이버 환경을 올바르게 즐기는 건강체질을 만든다.

사이버 환경은 가상과 현실이 결합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허상이 진실을 대체하고 왜곡과 가공된 이미지가 권력을 가진 세계다. 그 세계에 중독된 개인을 현실로 끌고 오는 힘은 바로 삶의 역동성과 즐거움에 있다. 사이버 환경의 깊은 이면에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신의 존재감과 타인에 대한 호기심, 자존감을 지키려는 노력과 소외되지 않으려고 사회성을 추구하는 시도가 블로깅, 소셜네트워크킹, 메시징, 커뮤니티 모임, 심지어 게임에서도 그대로 표출된다.

반면 현실의 만남을 온라인상의 만남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태도, 건강한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생활태도가 순기능적인 온/오프라인의 균형을 이루게 하며 사이버 환경에 중독되지 않게 해준다. 만약 같은 조직에 속한 사람과 실제적으로 얼굴을 보고 접촉하는 것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낀다면, 이미 왜곡된 관계성이 생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인격적 만남이 없는 온라인상의 관계성은 결국 허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모든 친구는 진실한 관계인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만든 관계일까?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정체성은 현실적 만남의 연장일 때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어떤 오락과 활동도 오프라인에서의 운동성이 우선되어야만,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만 집착해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참여는 자아도취의 연장일 수도 있다.

셋째,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사이버 미디어를 알아가고 활용하는 노하우를 익히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오히려 사이버중독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즐길 수 있다. 사이버공간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중독에 빠지지 않고 즐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사이버 환경은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상호적 커뮤니케이션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장소다. 연약한 개인이 골리앗을 대면한 다윗처럼 거인과 맞설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제공하는 곳이다. 반면, 정제되지 않은 욕망과 폭력이 상존하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검증되지 않는 메시지들이 혼재하는 곳이다. 이런 속성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지혜를 필요하다. 이럴 때 사이버중독은 설 자리를 잃는다. 동전의 양면을 모두 읽는 눈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자세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사이버 미디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편견만 쌓일 것이고, 편견은 무지와 소외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 현실의 만남과 활동에 소극적일 때 우리는 사이버 공간이 주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채팅과 문자 메시지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작 깊이 있게 인생을 나눌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사이버 환경이 만들어낸 위험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한다. 현실의 세계에서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중독에 빠지지 않고 그 세계를 관리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낯선 사이버 세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반쪽이 될 수도 있다.



이재용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IT/통신분야에서 17년간 일했다. 포스테이타, 삼성전자를 거쳐 미국스프린트(Sprint), BT(British Telecom), 싱가포르텔레콤(Singapore Telecom)등에서 근무했으며, 캐나다로 이주한 후 밴쿠버 Trinity Western University 신학대학원(ACTS)에서 DCS(Diploma in Christian Studies)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PICplast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포스트모던한 현대에서 사이버스페이스가 만들어 가는 변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2011년 봄에 『IT전문가 가족의 사이버중독탈출기』를 출간한 바 있다.



스마트폰 전성시대 : 스마트폰은 편리하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스마트폰인 직장인 A씨의 이야기

- 아침: 알람으로 일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오늘의 날씨를 확인한 후 거기에 맞는 옷을 골라 입는다.
- 출근길: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체크하고, 신호대기 중에는 틈틈이 뉴스를 보거나 e메일을 확인하며 하루 업무를 계획한다.
- 점심시간: 은행에 직접 가는 대신, 커피를 마시며 있는 곳에서 간단히 업무를 처리한다. 친구들과 볼 영화 예매도 잊지 않는다.
- 저녁: 메신저로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잡고, 낮에 예매해둔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 집에 가는 길: 좀 전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룹칼럼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6기 4조 (김락현, 김소영, 김수연, 신경아, 유혜영)

바야흐로 스마트폰 사용자 2천만 시대. '전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스마트폰의 등장은 IT 업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소비, 생활 방식에서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일기예보 확인, 이메일 체크, 동영상 감상, 제품 조사 및 구매, 상점 바코드 스캔, 쿠폰 다운로드, 독서, 게임, 도로교통 정보 확인, 뉴스 검색, 소셜 네트워킹, 영화 표 예매... 등등 생활 전반의 해결사가 되어 버렸다. 최근 이러한 열풍을 증명하듯, '모바일 정보를 생활화한 현대인'이라는 의미를 담은 '호모 모빌리스(Homo Mobilis)'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스마트폰은 사람들을 그 작은 화면 안으로 깊이 끌어당기며 현대인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요즘 장소 불문하고 그 화면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다. 친구와 밥을 먹을 때에도, 대화 중에도 예외는 없다. 늘 손이 닿는 곳에 놓고는 시시때때로 확인한다. 메시지가 오면 즉답해 주는 건 기본이다. 상대방과는 눈도 맞추지 않으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자신의 푹푹한 휴대용 컴퓨터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는 점점 줄어들다.

미국의 한 뉴스 웹사이트인 'ArchNewsNow'의 어느 조사 결과가 놀랍다. 도시화, 즉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사회적 소외의 원인이 되고, 통계학적으로 인구 밀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사람 간의 교제는 10% 감소한다는 보도였다. 남의 눈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 간의 공간적 거리가 좁을 때 가깝고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다수의 낮은 사람들로부터 사생활을 지키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극심한 도시화 속에서는 마땅한 피난처 찾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 그런 중에 등장한 스마트폰은 사람들에게

는 시대가 된 건가? 스마트폰이 편하고 도움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과연 사람을 '이롭게'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자신 있게 "Yes"라 말하기가 망설여진다.

스마트폰을 넘어서

인류 역사와 함께 과학기술은 진보하였고, 앞으로도 이전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이리다가 '탈스마트폰화'된 삶의 방식이 구시대적인 낡은 기억으로만 남게 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곳곳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사는 이들이 있다. 그것도 더 큰 이익을 누리면서 말이다.

**스마트폰은 우리 손에 꼭 쥐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야 한다.
그럴 때야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천국 확장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가뭇에 단비와 같은 탈출구인 셈이었다. 다소 번거롭고 부담되기까지 하는 현실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모바일 채팅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관계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식적일 필요도 없고, 더 솔직해질 수 있다며 반색하기도 한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가상세계. 그 곳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형성하며 혼자라도 충분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다.

달라진 건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초고속 시대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모른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3G 네트워크가 느리다며 불평하고,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아가면 될 걸 서비스가 부족하다며 불만이다. 편리함은 조급함으로, 조급함은 다시 짜증으로 바뀌며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삶에서 여유를 누리면 손해 보

출근 중인 직장인 B씨. 요새는 야근이 잦아 허겁지겁 지하철을 탄다. 두 세 정거장 정도 지나서야 정신이 좀 들자, 어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생각났다. 인터넷과 SNS 어플을 켜서 당장 업무 처리를 하고 싶지만 스마트폰 고장으로 불가능하다. 답답하고 짜증만 난다. 하지만 오랜만에 생각할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 이내 머릿속으로 할 일의 목록을 정리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지하철의 진동, 눈부신 한강과 사람들의 출근 풍경 역시 새삼스레 반갑다.

여대생 B양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동안 멀어졌던 사람들과 자주 연락을 했다. 고등학교 동창, 고향 친구 등등.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다, 아예 날을 정해 만나기로 했다. 어떻게 지내는지, 얼굴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예전처럼 같이 밥 먹고, 커피도 한 잔 하

며 눈을 맞추며 웃고 떠들 것이다. 함께 모일 그 시간이 정말 기대된다.

스마트폰의 빈자리에 조금함과 짜증을 넘어 불안이 들어설 수도 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천금 같은 시간을 누릴 수도 있다. 자연과 사람이 살아가는 풍경,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시선을 이끈다. 직접 이어지는 만남은 생동감과 진지함을 준다. 사람들의 표정과 눈빛, 목소리를 기억하고 오감으로 소통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형성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똑똑하다.’라는 스마트의 의미는, 한자어로 ‘지혜롭다.’이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란, 이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잠9:10)이라 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 그 답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 맺는 존재로 지으셨다. 하와를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창 2:18) 보이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의 사람들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실 것만 같다. ‘함께’는 중요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에서 살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비로소 나타난 비밀인 ‘교회’가 이것을 증명한다. 바울은 많은 서신에서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 몸된 교회는 ‘

다 함께 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다’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이 말해주는 바, 본래 사람의 모습은 매우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맺어지는 끈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고,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라고 하셨다. 기기 자체로는 선하거나 악한 게 있을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을 삶의 중심에 놓자. 그러면 도구를 내려놓아야 할 때와 활용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만 손에 쥐고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할 것 같은가? 예배 때도 성령님이 스마트폰으로 임재하실 것 같은가? 내가 이런 저런 구실을 찾으며 관계 맺는 걸 회피하려 한다면, 과감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한다. 피하고 싶더라도 공동체와 부대껴야 한다. 한편 SNS를 나눔과 교제의 통로로 적극 이용하면 실시간 중보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스마트폰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엡4:3)’는 도구가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생활을 돕는 어플리케이션도 참 많다. 이를 통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꼭 쥐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야 한다. 그럴 때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천국 확장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여 마침내 스마트폰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엡4:13)’ 것이 가능해지리라.

* 롬12:4~5, 고전10:17, 고전12:12~13, 엡2:16, 골3:15

** 행2:44, 행 2:46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국민일보, CTS, CGN-TV, 극동방송 등 주요언론단체와 협력하여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1인 미디어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실무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바른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기독교 언론인의 양성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도록 교육합니다. 이를 위하여 신학, 법학, 의학, 교육,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교수님들을 강사진으로 초빙하였습니다.

1인 미디어시대가 요구하는 미디어 실무역량 강화

언론과 방송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실무자의 실기지도로 실무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과 방송을 향한 문화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세상과 교회, 사회와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합니다.

2012년 4월 7일 7기 개강 (현재 6기 진행중)

강사진

세계관 강의 강사진

손봉호 교수(고신대 석좌교수) 성인경 대표(한국 라브리)
 강찬구 교수(고신대 컴퓨터영상교과) 신국원 교수(총신대 신학)
 김대인 교수(법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동연 이사장(한국중합과학기술원)
 김승욱 교수(중앙대 경제학) 이경원 교장(세종대학교 그리스도아카데미)
 노영상 교수(정로회신학대) 이인용 부사장(삼성전자)
 박상은 원장(인양생명원) 조영길 변호사(주최회사·서울권 대표)
 박희주 교수(영지대 과학사) 한정화 교수(한양대 경영학)

미디어실무 강사진

김도태 사진작가(스튜디오A08)
 김정원 기자(mbn)
 유지은 PD(前)본 프로덕션 PD)
 이정아 국장(CGN-TV)
 이철원 촬영감독(CGN-TV)
 임준택 강사(서울대 학부)
 장유진PD(주미로필름 대표)

교과과정

세계관강좌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과 소명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기독교세계관과 역사관
 기독교세계관과 생명윤리
 창조론과 진화론, 지적설계

미디어 이론 강좌

기독교언론인의 자세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유비쿼터스시대 미디어
 설득커뮤니케이션
 뉴스원고 구성

영상실습 강좌

영상제작 기획과 스토리텔링
 영상연출(앵글, 구성, 콘티, 뉴이티 기타)
 방송뉴스, 스튜디오 실습
 편집이론과 실습
 국민일보 필드trip
 영상캠프(5박 6일)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구성

기간_2012년 4월 7일(토)~7월 27일(토), 매주 토요일 선발정원_20명

수강비: ~~1,500,000원~~ >>>

300,000원

(본 프로그램의 나머지 수강비는 외부후원으로 지원)

김동영, 네잎 클로버의 노래

서성록

김동영이 작품의 모티브로 삼는 것은 네잎 클로버이다. 이곳저곳에 동지를 튼 크고 작은 클로버들은 질화로같이 따듯한 온기가 남아있는 추억의 이름으로 다가온다. 네잎 클로버의 이미지가 누구나 경험했을, 어릴적 산과 들을 헤집고 다녔던 기억들을 불소시게처럼 휘적거려 아득함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황창순 시인의 '네잎클로버'란 시에는 “어릴 적 잔디밭에 꿈을 찾아 노닐다가 풀꽃반지 한두 번 손가락에 끼워보지 않은 사람 있을까/행운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그대는 네 잎의 날개를 달고 기쁨을 선사했네”란 구절이 나온다. 분명 김동영의 회화작품을 볼 때도 시인이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영의 회화는 자연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연의 재현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까지는 않다. 만일 자연의 재현 자체를 겨냥했다면 '사실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디테일에 더 신경을 기울였겠지만 그의 작품은 오히려 네잎 클로버의 이미지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는 상징성을 띠면서 여러 색채와 질료와의 어울

네잎클로버의노래(A song of Four leaves Clover)-140x140cm-Mixed Media-2011



김동영의 회화는 자연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연의 재현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만일 자연의 재현 자체를 겨냥했다면 ‘사실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디테일에 더 신경을
 기울였겠지만 그의 작품은 오히려 네잎 클로버의 이미지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는 상징성을 띠면서
 여러 색채와 질료와의 어울림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림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실 그의 작품을 볼 때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이미지라기보다는 조형적인 부분, 즉 산뜻하거나 그윽한 색감과 확산적인 공간감이다. 그의 공간은 테두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뭇잎의 패턴이 반복되면서 확장되어가는 속성을 지닌다. 마치 사각의 틀에 매이지 않는 전면회화(all-over painting)의 그것처럼 바깥으로 뻗어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조형적 내재성을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은 ‘경쾌한 필선’과 ‘담백한 질료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점을 검토해보면, 첫째 그의 화면에서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경쾌한 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운필의 표정을 감지할 수 있는데 순식간에 어떤 형태를 만들어놓은 것에서 액센트를 가한 것, 목직하듯 힘이 실려있는 것, 날쌔 제비가 물을 차고 올라가듯 날렵한 것, 낙서하듯 자유롭게 그은 것까지 여러 표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필선은 화면에 운동감을 주면서 그림을 흥겹고 경쾌하게 만든다. 그림에 활력이 넘치는 것은 구김살없는 필선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그의 그림은 여러 재료에 의해 구축되는 ‘담백한 질료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화면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밀칠과 지우기, 그리고 다시 채색과 같은 요인의 반복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화면의 정황을 살펴보면 마치 도장처리한 듯 매끈한 면이 있는가 하면 푹배기처럼 우둘두둘한 면, 솜이불처럼 포근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의 면이 있다. 같은 화면에서 여러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작가는 입자가 굵은 돌가루를 섞고 캔버스를 오려붙이는 등 무엇보다 바탕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특히 근래에는 돌가루와 콜라주를 사용하여 잔잔한 조형의 울림을 지닌 깊이감있는 공간을 구축해내고 있다.

왜 작가는 이토록 화면의 질료감에 공을 들일까? 질료감은 재료를 자

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기량과도 상관이 있지만 사실 재료의 버무림을 잘 해야 그림이 맛깔스러워진다. 바탕의 질료감이란 눈발과 같아서 비옥한 농지가 되어야만 풍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추상회화처럼 이미지가 별로 없고 색채와 필선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더욱 질료가 지닌 비중이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질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필수적인 항목이 된다. 만일 눈발이 거칠고 메말라 있다면 만족할만한 소출을 기대할 수 없듯이 그림에 있어서도 비옥한 바탕이 전제될 때 비로소 소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찌개의 맛을 내려면 잘 우려낸 육수를 써야하듯이 말이다. 김동영의 질료감은 이런 기본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경쾌한 필선’과 ‘담백한 질료감’을 그의 작품의 특징으로 든 것은 그의 작품을 떠받치는 조형적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이 두 요인이 중핵적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색채의 부분도 빼놓을 수 없으리라 본다. 그의 화면에서 우리는 분홍색, 초록과 청록, 갈색, 코발트, 잿



네잎클로버의노래(A song of Four leaves Clover)-72.5x72.5cm-Mixed Media-2011

작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축복의 연속’
이라고 여기며,
행운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신안에 있고,
자신의 삶속에
있다고 본다.

빛 등을 자주 만날 수 있는데 그가 특정한 색조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식물성 이미지의 생명력을 표출할 수 있게 순도 높은 색상을 사용해왔으나 근래에는 저채도의 차분한 색조가 자주 목격된다. 종전 작품이 바이올린의 경쾌하고 가벼운 음색이라면, 근작은 첼로의 묵직하고 기품있는 음색을 지닌다.

몇몇 작품에선 신라 토기를 연상시키는 기와색조가 눈에 띈다. 물감으로 얻은 색조가 아니라 자연이 조성한 것같은 무채색은 세월의 나이테가 켜켜이 새겨있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산전수전을 다 겪은 뒤에 찾은 어떤 안도감과 평화로움을 안겨준다. 그 색은 인공의 색이 아니라 신비를 머금고 있는 색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그의 작품은 네잎 클로버로 가득 차 있다. 네잎 클로버가 그토록 많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 뭔가 뚜렷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연 작가가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 클로버에 애착을 기울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네잎 클로버의 꽃말인 ‘행운’은 우리가 예상치 않게 횡재를 하거나 수지를 맡았을 때 찾아온 복을 일컫는다. 가령 전혀 기대하지 않은 횡재를 했을 때 우리는 ‘행운을 잡았다’고 말한다.

작가가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 클로버를 고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작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축복의 연속’이라고 여기며, 행운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신안에 있고, 자신의 삶속에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삶의 통찰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인생관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즉 삶 자체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요 선물로 여겨 하나님의 자녀됨과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행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탄생이 그것이고 일평생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무관하게 엄청난 양의 폭우가 퍼붓듯이 그렇게 쏟아져 내린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 놀라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요 우리에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고심(自高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욕망의 올라가미에서 빠져나와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놀라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의 시인인 토마스 트래험(Thomas Traherne)이 그랬듯이 김동영은 세상을 “무한한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 “장엄한 사원” “빛과 평화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어찌 인생에 황홀한 무지개빛만 있으라 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세상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며 어떻게 ‘나날의 기적’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자신의 일상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성소요 계시의 장소로 여긴다. ‘네잎 클로버’는 일상속에 편재하고 있으므로 매순간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그의 작품을 보면 영혼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환희에 몸을 내맡긴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환희가 작품의 일상음료와 양식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예술가가 이런 환희를 작품안에 저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젊음의 활기를 잃고 휘청거리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라면 피클을 만들고 보존하듯이 기쁨의 가락이 자신을 절이고 보존하게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그 기쁨이 나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게 하려면 항구적인 영원의 샘물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구가 낮에 밝은 것은 태양이 비추고 있음 때문이요 밤에 환한 것은 달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듯이 자아가 환희에 휩싸이는 것은 진리의 접목 또는 조명없이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 필자는 실재와의 만남과 진리의 구속이 이전에 깊고 심오한 세계를 경험했던 신앙인들처럼 김동영의 회화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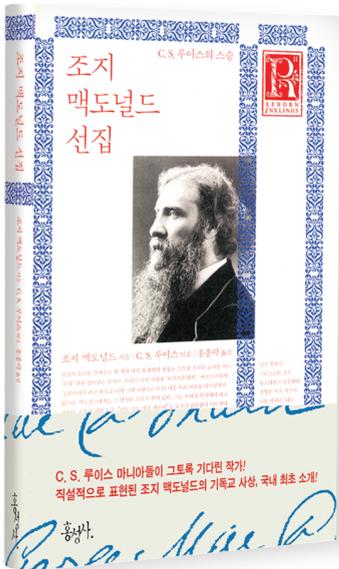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에 조지 맥도널드보다 더 가까이 다가간 작가,
더 지속적으로 그 곁에 머문 작가를 나는 알지 못한다.” C. S. 루이스

조지 맥도널드의 작품들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이 담긴 내용을 루이스가 선별해 엮은 책.
간결하고 목적하며 예리함을 갖춘 표현들, 맥도널드의 지혜와 거룩함이라 부를 만한 광채,
후렴구처럼 흐르는 ‘굽힐 줄 모르는 사랑’...

맥도널드의 사상이 루이스에 의해 어떻게 변주되었는지 확인하는 즐거움이 더한다!



C. S. 루이스의 스승
조지
맥도널드
선집



조지 맥도널드 지음 | C. S. 루이스 엮음 | 홍종락 옮김
믿음의 글들 293 | 216면 | 12,000원



365일 곁에 두고 읽는 묵상집

- J.C. 라일의 예수 묵상 365
J.C. 라일 지음 | 에릭 러셀 엮음 | 진화용 옮김 | 믿음의 글들 272 | 504면 | 19,800원
- C.S. 루이스, 기쁨의 하루
C.S. 루이스 지음 | 윌터 후퍼 엮음 | 홍종락 옮김 | 믿음의 글들 283 | 496면 | 23,000원

코너스톤 커리큘럼

“세계 어느 곳의 선교 현장에서
홈스쿨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선택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커리큘럼, 성경적 세계관을 선택한 여러분을 위한 커리큘럼을 소개합니다.

❖ 코너스톤 커리큘럼의 특징

코너스톤 커리큘럼은 성경(성품)에 기초하여 역사, 국어(한문), 영어 등 다른 교과목과 연계해 통합 교육적 공부법을 제시하여 기존의 교육으로는 채울 수 없는 새로운 교육 철학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두 10단계로 구성되어 1~5단계에서는 언어의 기초 능력을 확실히 다지고 6~7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논리를 공부하며 8~10단계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과 성품교육을 가장 중심에 두고 성경과 역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샬롯 메이슨 교육 방법론과 고전교육 방법론에 따라 고전 문학 작품부터 현대의 작품까지 저자의 뜻이 서린 좋은 작품을 선정하여 서술하기, 소리내어 읽기, 랩북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코너스톤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자신의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2. 코너스톤 커리큘럼은 10단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1~5단계에서는 언어의 기초 능력을 확실히 다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6~7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논리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8~10단계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단계
(만6-8세)

2단계
(만7-9세)

3단계
(만8-10세)

4단계
(만9-11세)

5단계
(만10-12세)

6단계
(만11-1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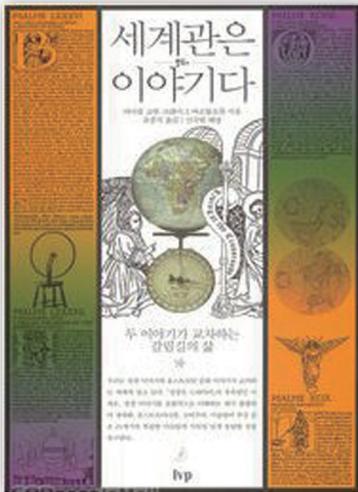
7~10단계
(준비중)

3. 성경과 성품교육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 바라는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 좋은 습관을 갖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성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벧전1:15-16).
4. 성경과 역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샬롯 메이슨 교육 방법론에 따라 살아 있는 책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좋은 고전 문학 작품부터 현대의 작품까지 저자의 뜻이 서린 좋은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학작품들을 서술하기, 소리내어 읽기, 랩북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코너스톤 커리큘럼은 고전교육 방법론의 중요성에 따라 고전 교육 방법론을 커리큘럼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7. 역사, 국어, 영어를 성경에 기초하여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식에서 또 다른 지식으로 개념을 확장하면서도 깊이 있는 심화학습을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8.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법을 일깨워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9. 커리큘럼은 36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어린이들의 성취도에 따라 진도와 학습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너스톤 커리큘럼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전화/홈페이지/방문상담)
T. 02-529-7722 | www.dctybooks.co.kr/curriculum/course.asp

교차로에서 나누는 세계관 이야기

신국원



마이클 고힌, 크레이그 바르틀로뮤, IVP, 2011

지금 세계는 교차로에 서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위기이자 기회라면 우리 모두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이 책은 교차로에서 바른길을 선택할 안목을 제공하는 기독교세계관 '입문서'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전통의 적자(嫡子)들이다. 하지만 단순한 계승자들은 아니다. 그들은 이 전통의 본질이 성경의 복음을 위기에 빠진 문화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임을 잘 알고 그 정신을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음이 주류 문화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보이기 위해서는 성경 이야기를 '벗어나' 세계관의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이질적인 철학이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특히 세계관 담론이 철학적 주지주의에 빠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형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식자들의 말잔치로 끝날 우려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세계관 진술이 내러티브 또는 이야기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도 철학 이론처럼 비치는 창조-타락-구속 도식에 성경 이야기를 입히는 작업을 해 왔다. 이는 세계관이 모든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커다란 이야기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뉴비긴의 말처럼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하는 책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비롯하여 기독교 학문이나 사회 참여 그리고 문화론은 복음 전도나 선교와 무관하거나 심지어 장애를 가져온

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생각을 불식시킨 것이 두 사람의 강점이다. 그들은 신학이건 기독교 세계관이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며 목회와 신학을 해 온 사람들이다. 두 사람의 논의는 복음에서 출발하며 그를 통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들은 전도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한다. 물론 전도가 피상적인 복음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문화의 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한다.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무르거나 특정 지역만의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보편적 삶의 기준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를 공적 영역에서 증거하는 데 필수적이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서구의 전통과 세계관이 이미 여러 차례 기독교와 교차했음을 깨닫는다. “서구 문화를 지배하는 세계관인 모더니즘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긴 역사의 산물이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쉼퍼처럼 서구 문화의 기초가 된 근본 신념들을 형성한 발달사를 더듬어 보면서, 서구인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를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세계관 운동이 어떤 매혹과 환멸을 가졌는지도 잘 알고 있다.
세계관이 바뀌면 세계도 덩달아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계관 이야기는 우리를 흥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완고함을 깨닫는 순간 흔히 좌절을 경험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관 공부를 할수록 과제는 더욱 넓고 깊어지고 어려워진다.**

새롭게 조명하려 한다. 이는 서구 사회 이야기의 영웅 자리에 이성 대신 복음을 두는 방식으로 서구의 지성사를 다시 쓰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복음과 헬라의 세계관이 어떻게 중세의 종합과 르네상스를 지나며 인본주의 세계관의 확립으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보이는 작업이다.

성경 이야기와 서구적 세계관의 궤적은 서로 교차하지만 평행하지는 않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와 계몽주의 모더니즘의 이야기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이 경쟁을 벌이는 교차로에 서 있다. 모더니즘은 기독교 유산에서 신을 죽인 인본주의 정신의 산물이다. 반면에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비판하여 종교를 되살려 놓았지만, 인본주의의 자율성을 극대화한다. 소비주의와 세계화라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만연하는 가운데 이슬람이 번영하고 있다. 이런 양립될 수 없는 세계관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복음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증거되어야 할 것인가?

자유주의가 복음을 사회적 메시지로 전락시킨 데 대해 복음주의가 반대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복음으로 문화와 사회를 조명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할 소명을 저버린 것은 잘못이다. 세계관의 교차로에서의 복음 증거는 사회와 문화를 버려두고 퇴각하는 것이 아

나라 세계관이 교차하는 긴장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요소마다 뉴비긴이 부각되는 것은 그가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의 공공성을 강조한 뛰어난 이론가요 실천가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또한 오르와 카이퍼가 자신들의 시대에 행했던 “선교적 대면”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현하길 소망한다. 선교사는 그가 파송된 문화와 성경의 이야기를 긴장 관계 속에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 타협하거나 순응하면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겠지만, 문화와의 소통이 끊어진다면 복음은 거부될 것이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타협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문화에 접목하는 것보다 강력한 문화적 우상들에 의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안다. 두 사람은 이런 위험을 지적해 온 재세례파와 국교폐지론 전통의 경고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 변혁이나 정의 구현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자비와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바른 증인이 되기 위해 영적 증언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세계관 운동이 어떤 매혹과 환멸을 가졌는지도 잘 알고 있다. 세계관이 바뀌면 세계도 덩달아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계관 이야기는 우리를 흥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완고함을 깨닫는 순간 흔히 좌절을 경험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관 공부를 할수록 과제는 더욱 넓고 깊어지고 어려워진다. 그래서 “승리주의”와 “패배주의”를 넘어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결단과 인내가 필수적이다. 이런 씨름을 너무도 잘 아는 저자들은 “목회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후기를 달았다. 충고의 핵심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보내신 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그러니 “치열한 영성만이 이런 일을 해내도록 우리를 떠받쳐 줄 수 있다.” 영적 습관 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명에 따라 증언할 뿐 그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단 공적 광장에 있는 세력들을 상대할 때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해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구속은 회복이다. 회복된 창조 세계가 곧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교차로에 선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다. 두 사람은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에 기초하여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30년 넘게 같은 논의를 해 온 우리도 이제 그들이 보여 준 좌표를 참고하여 온 길을 돌아보고 갈 길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



신국원 총신대학교 신학과 철학 담당 교수이며 분당중앙교회 협동 목사이자 어버나 삼페인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교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있다.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www.worldview.or.kr
 www.cupbooks.com _블로그

프란시스 웨퍼의 부인
 이디스 웨퍼가 엄마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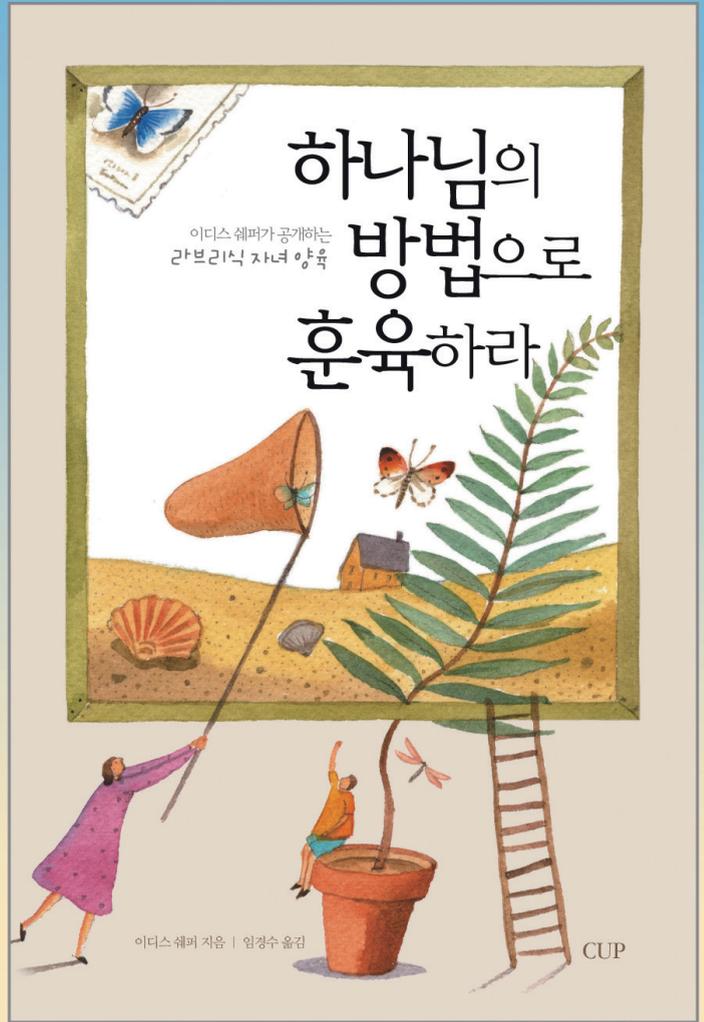
부모들이 흔히 느끼는 26가지 질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답변!

책장을 한 장씩 넘기는 동안 독자들은 마치 알프스 산에 올라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웨퍼 여사가 라브리에서 깨달은 지혜와 영성, 따뜻한 자녀 사랑의 마음을 마실 수 있다.

_ 성인경, 박경옥 (라브리공동체 공동 대표)

이디스 웨퍼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도록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책이 부모들에게 살아있는 감동을 줄 것이라 생각하며 강력히 추천한다.

_ 지지 그레이엄 차비진 (발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녀)



이디스 웨퍼 지음 | 임경수 옮김 | 8,500 원

*A Celebration
 of Children*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C U P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12년 정기총회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의원 정기총회가 국군중앙교회(서울시 용산구 연지동, 담임목사 이성희)에서 2012년 1월 16일(월) 3시에 개최됩니다. 총회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하여 1월 13일(금) 오전 10시에는 실행위원회의, 오후 2시에는 이사회가 열리니 해당하는 임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역회의 한해를 돌아보고 신년의 비전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는 정기총회에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시는 길은 약도를 참고하세요.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방향 좌측골목300m 저점 우측)
버 스: 149, 152, 500, 502, 506
507, 750A, 750B, 751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제6기 중기과정 영상캠프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제6기 영상캠프가 2011년 12월 26일(월)~29일(목)까지 3박 4일간 팀 비전센터(은평구 불광동)에서 있었습니다. 최태연(백석대) 교수의 세계관 강의와 임영광(분당만나교회) 목사의 특강, 장유진, 유지은 PD의 영상기획, 촬영실습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한 성경적 가치관의 확산에 관한 실제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28일) 저녁에는 졸업생들도 참여하는 송년 모임의 자리를 갖고 미디어 사역에 비전을 함께 하는 선후배 간에 귀한 만남과 격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제6기의 전 과정은 2월 11일에 마칩니다.



제3회 기독교언론대상
 ‘SBS스페셜_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황승환PD 수상

한국기독교언론인연합회(CJCK·조경범 회장)와 한국기독교문화예술인총연합회(임동진 회장)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한국기독교언론대상의 대상에 ‘SBS스페셜-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프로는 지난 8월 21일과 28일 SBS TV에 방송된 2부작으로 매일같이 보도되는 편법상속, 뇌물수수, 특혜비리 등 보도 속에서 과연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떠올리게 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사례와 심리실험을 통해 부정을 눈감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심사위원은 김승욱 중앙대 교수(세계관동역회 실행위원장), 김승태 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세계관동역회 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인기석 종무관, 안종묵 칭주대교수가 맡았습니다. 기타 부문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정의 부문 최우수상 ‘학교란 무엇인가(EBS 10부작, 정성욱, 남내원, 박유준PD)’, 우수상 ‘국군포로 그들은 지금 어디에’(KBS 50분다큐, 연규선기자), 나눔기부 부문 최우수상 ‘예수사랑 여기에’(CTS 오창길PD), 우수상 ‘다시 빛과 소금으로’(동아일보 김갑식 기자의 특별취재팀), 생명사랑 부문 최우수상 ‘在中 탈북고아 돕기 특별생방송(극동방송 강수미PD)’, 우수상 ‘유쾌한 삼총사(디앤지스타 김은경 대표)’, 특별상 ‘이단 신천지 경계보도’(CBS 최경배, 송주열 기자), ‘오갈 데 없는 교회 전국 1만 3천곳’(국민일보 유영대 기자), 다큐영화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뉴스앤조이 김종희 대표, 프리랜서 김형대PD).



패션그룹 형지
 PAUA 컨퍼런스에 의류 기증



패션그룹 형지(김원수 대표, 세계관동역회 후원위원장)는 2011년 12월 29일(목) 전국기독교교수연합회(전기련) 임원들을 만나 캄보디아에서 개최하는 제5회 PAUA 컨퍼런스(1월 15일~20일)에 참여하는 선교사들에게 기증하는 의류(크로커다일, 샤프렌) 200벌을 전달하였습니다.

알고보면 따뜻한 남자
손봉호의 뼈있는 유머



ILLUSTRATION BY 신선영
(1004shinsun@naver.com)

목사의 유머 감각

어느 목사가 교인들과 사이가 좋지 못해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는 고별설교의 본문으로 요한복음 14장 2-4절을 택해, 앞부분은 빼고 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를 들은 교인들의 얼굴은 곧 어두워졌다. 그가 교도소 목사로 가기 때문이었다.

월드뷰
편집부



월드뷰의 도전에 동참해 주십시오.

2012년 월드뷰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매월 무료 배포하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습니다.

속해 있는 교회, 직장, 기관 등에 월드뷰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함께 월드뷰의 도전을 완성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글이, 당신의 후원이, 당신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월드뷰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02)754-8004 메일: info@worldview.or.kr

후원구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부에서는 독자들의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뷰를 읽고 느낀점이나 바라는 점을 이메일(info@worldview.or.kr)로 보내주세요.

독자후기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후기를 보내실때는 이름과 전화번호, 직업,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노트로 쓰다, 드로잉하다, 색칠하다. 지우다, 캡처하다, 메모하다, 구상하다. 아이디어를 내다, 수정하다, 보내다, 올리다, 창조하다.

Phone? Tablet? It's Note!



SHV-E160



Samsung GALAXY Note



• 5.3형 HD 슈퍼아몰레드 • S펜 & S메모 • 4G LTE • 1.5GHz 듀얼코어 • 2,500mAh 대용량 배터리

* LTE 서비스 가능 지역은 통신사별로 상이하며, LTE 속도는 접속자 수 및 무선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이미지 및 사양은 최종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를 즐기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지금 바로 QR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세계 최초 여성전용 아웃도어
와일드 로즈

(주)샤트렌

Make-up Outdoor



여자에겐 아웃도어도 메이크업이다.
여성전용 아웃도어-와일드로즈



Make-up Outdoor

(주)샤트렌_와일드로즈 사업부_02.3498.6697

WILDROSES

세계 유일의 여성전용 스타일리시 아웃도어 브랜드- 와일드로즈

WILDROSES는 스위스 여성 전문 산악가 MS. DODE KUNZ가 오직 여성을 위한 상품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1993년에 태어났습니다. 현재 세계 19개국에서 만나 볼 수 있는 GLOBAL OUTDOOR BRAND입니다.